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더 많은 봉사 하고 싶어요”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박정애 보살

박정애(49·사진) 보살은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할 때부터 꾸준히 후원자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박 보살은 후원에만 그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간절했다. 그러던 중 5~6년 전부터는 복지관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절에서 복을 비는 것보다 봉사활동이 진정한 ‘보살도’

오나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차츰 마음가짐이 바뀌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진 것이다. 그러자 봉사활동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고, 활동도 더 즐거워졌다.

박 보살은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과 신앙, 아이들이 모두 부처님이라는 마음으로 대한다.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다보니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도 훨씬 넓어졌다. 자녀들에게도 늘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점수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는 말라고 강조한다.

박 보살은 “일주일에 한 번 봉사에 참여해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설명한다. 복지관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봉사의 의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정애 보살은 부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항상 경전을 가까이 한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까이 가서 복을 비는 것보다 ‘보살도’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경전 속 가르침들이 몸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건강한데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계속 봉사를 하면서 봉사와 연관된 삶을 살고 싶어요.” 박기범 기자

박 보살은 “몇 년째 활동하다보니 복지관이 내 집 같고, 직원들이 다 한 식구 같다. 봉사하려 오는 날은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날이다”고 말했다.

박정애 보살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로 “즐거움”을 꼽는다. 박 보살은 “봉사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더 많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즐거움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며 “어른들에게도 경감 있게, 내 부모 모시듯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정애 보살도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특별한 일처럼 생각하기도 했

반백년만에 새 한글로 나뉜 부처님 말씀

‘우리말 팔만대장경’ 9월 20일 봉정식 봉행



조계종 포교원장 혜충 스님이 9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봉정하고 있다.

고려대장경 간행 1000년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글로 살펴볼 수 있는 ‘우리말 팔만대장경’ 개정 신편이 출간됐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9월 20일 조계사에서 ‘우리말 팔만대장경’ 신편을 기념하는 봉정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충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유상종 고문, 대한불교청년회 정우식 회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봉정식 고분문에서는 “‘우리말 팔만대장경’출간이 불교현대화 역사의 시발점이 됐다면, 고려대장경 1000년을 맞이하는 ‘우리말 팔만대장경’개정 신편 출간은 1000년을 내다보며 불교 대중화, 뉴미디어 시대 콘텐츠 포교를 준비하는 불교 미래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정우식 회장은 “근현대 한국 사회를 대표했던 고승 대덕과 석학들의 눈으로 밝혀 준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통해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뜻을 오롯이 알고 널리 전파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1963년 초간된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당대 불교계의 출가와 재가를 망라한 최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펴낸 책이다. 청담·윤허·탄허·성철·법정 스님 등을 비롯해 김도화, 김달진, 김법린, 이은상 박사 등이 편찬위 중심이 돼 책을 펴냈다. 이 책을 필두로 동국역경원이 탄생하게 되고 이후 37년에 걸쳐 318권으로 된 ‘한글대장경’이 2001년 완역됐다.

‘우리말 팔만대장경’(모시는사람들 편)은 ‘한글대장경’의 방대한 분량을 집약해 대중들이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한 기념비적 역작이다. 이번 개정신편은 원본의

내용과 판례를 최대한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개정신편은 기존의 세로쓰기였던 책의 판형을 가로쓰기로 바꾸었으며 불교 신자와 일반인 모두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책의 감수를 맡은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한글 불경의 요구는 여전히 불교계의 오랜 과제다. 올해로 대장경 1000년이라는 감격의 순간이 왔지만 ‘불경의 대중화’는 요원한 불교계의 숙제가 되고 있다”며

“부처님 말씀의 방대함을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게 재구성해 전달하는 번역이 언제나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개정신편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우리말 팔만대장경>(모시는사람들 편)은 여섯 편으로 나누어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 열반에 들 때까지의 행적을 담았다.

제1편 ‘부처님의 나타남’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과 탄생 및 성도(成道) 이야기를 담았으며, 불교 역사의 전기류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불본행집경> 등을 경전에 근거해 읽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제2편 ‘아함경 범문’은 부처님 가르침의 시원(始原)이 되는 근본 교리를 초기 경전을 대표하는 <아함경>을 비롯해 기타 중요한 원시 경전에 의거해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제3편 ‘방등경 범문’은 부처님이 대승의 가르침을 전한 방등시(方等詩)의 대표적인 경전을 모았다. 대승 수행법의 결정판인 <능엄경> <원각경> 등 50여 종에 이르는 대승불전의 향연이 펼쳐진다.

제4편 ‘반야 계율부’는 불교의 중심사상인 공(空)의 이치를 <대품반야경>과 <금강경> 등을 통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하고 있다.

제5편 ‘범화 열반부’는 부처님의 구원성불(久遠成佛)과 일불승(一佛乘)이 존재한다는 대승불교의 종결적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범화경>과 일체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열반경>의 희망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제6편 ‘화엄부’에서는 <화엄경> <원각경> 등 50여 종에 이르는 대승불전의 향연이 펼쳐진다.

제4편 ‘반야 계율부’는 불교의 중심사상인 공(空)의 이치를 <대품반야경>과 <금강경> 등을 통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이어나는 기자

제8회 불교출판문화상 공모

불교출판문화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가 제8회 불교출판문화상 도서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불교 관련 도서를 주제로 한 도서로 한다. 불출협은 공모된 도서 중에서 ‘올해의 불서 10’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1종, 우수상 2종을 선정한다. 대상에는 500만원, 우수상에는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올해의 불서 10에 선정된 도서에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청 및 접수는 10월 10일까지 불교출판문화협회로 접수(02-3672-7181~5)하면 된다. 이은정 기자

영석고, 동국학원 산하로 새출발



동국대의 산하교육기관이 9곳에서 10개 기관으로 늘었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정영선)는 의정부 용현동에 위치한 영석고를 ‘동국대 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로 개명하고 10월 21일 새 교문준공식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동국대 국문과 54층)이 1970년 부친의 아호를 딴 ‘영석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법인을 세운 이래 현재 17개 학급 600여 학생이 수학중이다.

이사항 정영선 스님은 “동국대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가 의정부 지역사회 제일의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교육기관은 영석고를 포함한 4개 고교, 4개 중학교, 1개 초교, 1개 유치원으로 모두 10곳이다.

영석고는 설립자 안재환 이사장

조동섭 기자

제로투세븐 2억5000만원 후원 물품 전달

제로투세븐(대표이사 김경민)이 9월 20일 2억5000만원 상당의 영유아 물품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자승)에 전달했다.

“제로투세븐의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제로투세븐은 영유아 제품 전문기업으로 2011년 5월 1억5000만원 상당의 영유아 물품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 총 4억 원어치를 후원했다.



천진영 기자

이날 조계종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지난 5월에도 보내준 후원 물품으로 몽골과 라오스 등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며

조계종 재정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조계종 수익사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중단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재정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도입 가능한 사업분야를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555(2011). 10. 12(수) 오후 2시~5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문의 | 총무원 재무부(02-2011-1760), 불교사회연구소(02-730-0884)

주최_대한불교조계종 재무부 주관_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 주제 _ 조계종 수익사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발제 _ 1. 중단 재정사업의 원칙과 방향 _ 법안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
2. 중단 재정사업의 현황과 과제 _ 장영욱(재무부 사업팀장)
- 지정토론 _ 1. 계정스님(중앙총회의원·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2. 이상근(중앙신도회 사무총장·연우와 함께 대표)
3. 윤남진(NGO리서치연구소장)
- 대중토론 _ 대중과의 질의 및 응답
- 사회 _ 박희승(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